

## 화자와 청자의 친밀 관계를 나타내는 Tu와 Vous의 번역 양상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손윤지\*

**Yoonji Son (2021),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he intimacy markers “Tu” and “Vous” in French into Korean: The case of Le Petit Prince.** *Le Petit Prince* written by Saint-Exupéry is one of the most translated French novels in Korea. The main character, the little prince, visits various planets and has a conversation with people living on each planet.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meanings of “Tu” and “Vous” that the main character uses differently depending on emotional intimacy with his interlocutors and analysing how it was translated in six different translated versions published in Korea. French second-person pronouns “Tu” and “Vous” are indicators of the second-person, but they can be also used to represent the intimacy between interlocutors. On the other hand, Korean second-person pronouns are not directly connected to intimacy. When “Tu” and “Vous” are translated into Korean, the intimacy implied in the original language is expressed by using the honorific markers or normal word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The Little Prince, Literary translation, second-person pronoun, intimacy, pragmatics in linguistics**

**주제어: 어린 왕자, 문학 번역, 2인칭 대명사, 친밀도, 화용적 언어**

---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 1. 서론

어른을 위한 동화로도 유명한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1900-1944)의 『어린 왕자 Le Petit Prince』는 1943년 4월 6일 영어판과 프랑스어판이 뉴욕에서 동시에 첫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도서라 평가될 만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가장 넓은 독자층을 형성한 문학 작품 중 하나다(Simon 1963: 189).

한국에서는 안응렬의 번역으로 ‘소년조선일보’에 연재되어 1956년 최초로 소개되었고, 1974년에는 김현이 번역한 최초의 단행본이 문예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어린 왕자』는 다양한 한국어 번역본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사투리판 『어린 왕자』에 이르기까지 최초 한국어 단행본이 출간된 이후 약 61년 동안 국내에서만 400여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300여종이 훌쩍 넘게 출간되었다.<sup>1)</sup> 지난 2020년에는 생텍쥐페리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용 도서를 포함한 총 14권의 『어린 왕자』 재번역본이 출간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의 재번역<sup>2)</sup>이 이토록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순아(2005)는 “한국인 거의 대부분이 친근감을 갖고 애독하는” 도서인 『어린 왕자』가 꾸준히 출판되고 한국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유로, 비논리적이고 판타지적인 요소를 활용한 이야기 전개가 독자의 발상의 전환을 야기하며, 어른의 현실 세계와 동심의 순수한 세계를 대립구도로 표현한 생텍쥐페리의 의도가 독자의 상상력을 “우주적 차원”으로 향상시킨 점을 지적한바 있다.<sup>3)</sup> 즉, 한국 독자들은 작가 생텍쥐페리가 작품에 심어놓은 그의 생각과 세계관을 높이 평가하며 흥미로운 시각으로 『어린 왕자』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출간된 『어린 왕자』의 재번역본은<sup>4)</sup> 번역가 스스로 “지금까지 번

1) 인터넷 교보문고(<http://www.kyobobook.co.kr>)에서 “어린 왕자”를 검색한 결과 생텍쥐페리의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한 국내 도서는 총 528권이다(2021년 6월 기준). 소설, 만화, 학습용 등 모든 장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한 번역가의 번역본을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하거나 동일 출판사에서 연도를 달리하여 재발행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불문학 전공 평론가 안응렬, 김현, 황현산의 번역은 그 중에서도 여러 출판사나 혹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2) 임순정(2010)은 재번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의 원작이 동일한 매체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현상은 재해석(reinterpretation)이며, 출판 문학번역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원작을 재생산 및 재해석 하는 행위를 재번역(retranslation)”이라 한다.

3) 어순아(2005)는 『어린 왕자』가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독서 양케이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역된 그 어떤 번역본보다 프랑스어에 바짝 붙은 것”이라 자부할 정도로 원문이 드러나는 번역임을 표방하고 있다.<sup>5)</sup> 서구 고전 문학의 초기 수용 단계에서는 도착어 독자들의 출발어 문화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도착어 문화에 맞게 번역되었으나, 도착어 독자의 서구 문화에 대한 지식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재번역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임순정 2010: 6), 프랑스어에 “달라붙었다” 표방하는 재번역의 등장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번역과 최근 재번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바로 프랑스어의 2인칭 대명사에 해당하는 Tu와 Vous를 사용하는 경어(vouvoiement)와 평어(tutoiement)의 번역이다. 한국어에는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2인칭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반말과 존댓말, 대체 호칭어의 사용 등 다른 언어 장치를 활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생텍쥐페리가 독자에게 소개하는 주인공 어린 왕자는 때때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평어를, 보이지 않는 무생물체에게는 경어를, 또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경어를 쓰다가 후에 평어를 쓰는 등 그 표현을 달리 한다. 프랑스어 원문에서는 대화 속에서 Tu와 Vous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나 초기 번역본을 포함한 대다수의 번역에서는 두 인칭 대명사가 구분되지 않았거나, 혼용되는 등 프랑스어 2인칭 대명사의 한국어 번역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는 불문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번역가이기도 했던 전문가들이 Tu와 Vous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번역의 ‘오류’인 것일까?

영어의 2인칭 대명사 ‘you’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필요한 경우 맥락에 맞게 한국어의 체계 및 규범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호칭 또는 서술 표현으로 번역된다(원은하 외 2018: 173). 프랑스어 2인칭 대명사 Tu와 Vous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어 사용 규범에 맞게 표현될 수 있는데, 『어린 왕자』 번역의 경우, 두 인칭 대명사의 차이는 한국어 번역에서 드러나기도, 또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 왕자』의 프랑스어 원문과 여러 번역본의 비교를 통해 Tu와 Vous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 각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석 대상이 될 번역본의 번역 품질을 평가하거나 비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언어 규범의 측면에서 Tu와 Vous의 번역

4) 고종석(2021)『어린왕자』서울: 삼인출판사

5) 한겨레 2021년 4월 20일 기사 「프랑스어에 바짝 붙은 ‘어린왕자’ 번역본」참고.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힌다.

## 2.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2인칭 대명사 : 화자와 청자의 관계

### 2.1. 수직 관계의 한국어 2인칭 대명사와 호칭

국어국문학자료사전(1994)에 따르면,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의 일종이며, 화자 또는 화자와 청자가 이루는 축을 중심으로 각각 가리키는 인칭이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2인칭은 화자의 상대방에 있는 청자를 가리키며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에는 ‘너, 자네, 그대, 당신/너희(들), 자네들, 당신들’ 등이 있다. 한국어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개수에 대해서는 국문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원은하 외 2018: 177), 그 어법과 사용에 있어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바로 한국어에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2인칭 대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배양서 1989; 박정운 1997; 유송영 2004).

한국어에서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나 친밀 관계는 2인칭 대명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호칭을 비롯하여, 존대 또는 비존대 등으로 표현되는 문장 어미 등의 언어적 장치가 필요하다(김혜령 2018: 8). 한국어에서는윗사람을 부르거나 윗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2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데(박정운 1997: 520),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직장의 상사-부하, 교사-학생, 선배-후배, 삼촌-조카 등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할 때에는 ‘선생님, 사모님’ 등 ‘-님’을 붙여 그 위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삼촌, 할아버지’ 등 가족 및 친척 호칭을 사용한다. 이 때, 한국어의 호칭은 수직 관계의 위계를 바탕으로 청자와 화자의 객관적인 관계만을 드러낼 뿐, 호칭 그 자체에 대화 참여자 간 친밀함의 정도가 반드시 드러나지는 않는다.

박영순(2007)은 한국어 화자와 청자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상대적 연령(relational age)’을 지적한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나이, 상대방과의 나이차를 중시하는 문화가 호칭과 문장

어미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 친척 관계, 나이에 따라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존칭과 존대를,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비존칭과 반말을 쓴다. ‘상대적 연령’은 연령을 기반으로 한 수직 관계를 고착화 하는 요소이지, 화자와 청자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다. 박영순(1978)은 앞서 한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언어 규범이 1) 연령기반행위(age-graded behavior); 2) 성인 규범 지향성(development toward the adult norm)의 특징을 갖는다고 규정한 바 있다. 즉, 성인일수록 청자와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연령의 차이를 중시하고, 그에 따른 존대와 비존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 호칭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와 호칭 그 자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가까움을 나타내는 언어 표지가 아니다. 오히려 화자와 청자의 수직 관계를 드러내는 특성이 강하며, 한국어에서 호칭은 나이와 사회적 지위 등의 위계를 드러내는 언어 표지라고 할 수 있다.

## 2.2. 친밀 관계의 프랑스어 2인칭 대명사 Tu와 Vous

프랑스 문법 대사전 『Le bon usage』(2008: 835-838)<sup>6)</sup>에서 정의한 2인칭 대명사 Tu와 Vous는 일반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인간(더 나아가 친숙한 동물, 사물 심지어는 추상적인 대상까지)을 가리킨다. 2인칭 단수 대명사 Tu는 단일 수신자, 청자, 극히 드물지만 (친애하는)독자를 가리키기도 한다(서신 제외). 2인칭 복수 대명사 Vous는 다수의 청자, 독자들 또는 대화자가 속한 전체 집단을 가리킨다. 그런데 Vous는 다수의 청자가 아닌 한 명의 단일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단수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다. 이렇게 Tu대신 Vous를 사용하여 단일 수신자에게 말하는 것을 ‘경어(vouvoiement)’라고 하며, 이는 ‘평어(tutoiement)’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친밀함의 의미를 내포한 평어와 달리, 경어는 상대방이 화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화자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 쓴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도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CLE 출판사의

6) 1936년 발간된 프랑스어 문법의 모든 역사적 설명과 실제 사용의 증거를 무려 1602페이지에 담아 설명한 문법서.

『Grammaire expliquée du français』나 파리 소르본 대학 어학당의 교수진이 집필한 문법서 『Nouvelle grammaire du Français』에서 설명하는 Tu와 Vous의 활용을 살펴보면,7) Vous는 다수의 청자를 가리킬 때도 쓰이지만 단일 청자를 가리킬 때도 쓸 수 있는데, 이를 ‘공손의 vous (vous de politesse)’ 라고 한다. 이 때의 Vous는 청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식을 갖추어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다. 단일의 청자를 가리킬 때 Tu와 Vous의 사용은 나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나, 관계의 유형에 따라 매우 친밀한 상대방에게는 나이에 관계 없이 Tu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른은 아이나 가족 구성원, 친한 친구, 동료 등 친밀의 의미로 Tu를 사용할 수 있다. 아이의 경우도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물론, 가족 구성원을 비롯한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친숙한 어른들에게 Tu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예숙(2004: 59-62)은 2인칭 단수 대명사로서의 Tu와 Vous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2인칭 대명사 Tu와 Vous를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지”라 정의한다. 단수 대명사 Tu와 Vous가 분화되었던 4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Tu/Vous는 화자와 청자의 신분 차이에 따른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그 당시에도 Tu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표지였다고 설명하며, 현대에 들어서 Tu는 친밀도의 표현으로, Vous는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이거나 Tu에 내재된 친밀함이 배제된 표현으로 완전히 고착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세 문법서와 선행 연구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단수 대명사로서의 Tu와 Vous를 화자와 청자의 관계 측면에서 언어 내적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Tu/Vous의 언어 내적 의미

<b>Tu</b>	친밀함, 익숙함, 연대감, 비격식
<b>Vous</b>	낯설, 어려움, 사회적 거리감, 격식, 공손

따라서 프랑스어 화자는 Tu와 Vous에 내재된 의미에 따라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용을 구분한다. 이는 상황, 장소, 사회 계층, 가족 및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실제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

7) Grammaire expliquée du français (2002: 47), Nouvelle grammaire du Français (2004: 73)

계를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친숙한 어른에게 Tu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일 그 관계가 교실 안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라면 격식과 공손의 표현으로 아이인 학생은 어른인 선생님에게 Vous라고 말해야 한다. 또, 상대를 서로 Vous라고 지칭하던 화자와 청자가 서로 Tu로 부르기 시작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을 Tu로 부르다 갑자기 Vous로 부른다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 2.3. Tu와 Vous의 번역

이제 문제는, 프랑스어의 2인칭 대명사 Tu와 Vous가 지닌 기능과 의미가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와 정확하게 대응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2인칭 단수 대명사로서의 Tu와 Vous의 차이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모든 언어에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지켜야 할 언어적 규범인 언어 예절(linguistic etiquette)이 존재하며, 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한 언어 현상이므로(박영순 2007: 163) 외국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그 국가의 언어 예절과 규범이 한국의 언어 예절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때, 두 언어와 문화를 모두 아는 번역가는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최의식(2001)은 오노레 드 발자크(Honoré de Balzac)의 대표 소설 『고리오 영감 Le père Goriot』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룬 논문에서 등장인물의 평어(tutoiement)와 경어(vouvoiement) 사용에서 심리적 친밀도의 차이가 번역에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설 속 Tu와 Vous가 ‘당신’, ‘근대’라는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만 번역됨으로써, 프랑스어 2인칭 대명사의 차이가 등장인물의 심리적 친밀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말한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 되었으므로, 인칭 대명사를 반드시 같은 인칭 대명사의 층위로 번역하는 데 그치지 보다는 한국어에서 친밀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있잖아’, ‘근데’ 등의 친근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상실될 수 있었던 효과를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윤진(2001)도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Tu 또는 Vous로 칭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 간 심리적 친밀도를 나타내는데, 한국어에서는 이를 인칭 대명사 그 자체보다는 반말과 존댓말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지

적한 바 있다.

평어와 경어의 번역 문제는 프랑스 소설의 한국어 번역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방향의 영상번역에서도 나타난다. Jeanmaire(2015)는 한국어의 호칭체계에는 친밀도 보다는 등장인물 간 위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영화 속 한-불 자막 번역에서 한국어의 반말과 존대법이 불어로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인물 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반말과 존댓말의 차이를 고려하여 어휘 수준의 조정, 어역의 변경, 경어와 평어의 사용 등 프랑스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실되었던 친밀도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어에서 Tu와 Vous의 의미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잠재된 친밀함의 정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어는 2인칭 단수 대명사로서의 Tu와 Vous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친숙함과 낮춤, 평어와 경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그 자체로 친밀함과 낮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sup>8)</sup> 번역가는 그 차이를 인지하고 번역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어에 있는 적절한 언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Tu와 Vous는 문법적으로도 차이가 분명한 만큼,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 간의 대화에서 구분되어 표현된다는 것은 등장인물 간의 관계, 다시 말해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관계 및 친밀도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문에서는 명백히 구분되어 사용된 2인칭 단수 대명사로서의 Tu와 Vous가 함축하고 있는 화용적 차이를 한국어 번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작가가 설정한 등장인물의 성격과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 3. 텍스트 분석 및 결과

#### 3.1. 분석 대상 및 방법

『어린 왕자』의 한국어 번역을 주제로 하는 연구로는 프랑스어 및 한국어 병

---

8) ‘자기’, ‘당신’ 등의 2인칭 대명사가 남녀의 애정 관계에서 쓰일 경우 친밀함을 전달한다는 견해도 있으나(원은하 외 2018), ‘자기’와 ‘당신’이 Tu처럼 모든 맥락에서 친밀함을 드러내는 대명사로 볼 수 없기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럴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교육관련 연구와 번역 문법 연구가 있다(전성기 2016; 김명관 외 2019). 그러나 해당 연구들 모두 프랑스어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화자와 청자의 친밀 관계를 나타내는 Tu와 Vous의 직접적인 차이는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어린 왕자』의 프랑스어 원본과 번역본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한 프랑스어 2인칭 대명사 Tu와 Vous가 원문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밀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일 그렇다면 이와 정확히 대응되는 인칭 대명사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Tu와 Vous가 각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 및 표현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의 『어린 왕자 Le Petit Prince』(ST)와 번역본 6종을 선정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번역본 6종

분류	출간년도	출판사	역자
TT1	1973 (1993)	문예출판사 (문장그레이트북스)	김현
TT2	1993 (2015)	열화당 (열린책들)	황현산
TT3	2007	문학동네	김화영
TT4	2016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전성기
TT5	2016	새움	이정서
TT6	2020	삼인	고종석

300종이 넘는 번역본 가운데 위 6종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TT1의 초판은 『어린 왕자』의 최초 한국어 번역본이다. TT1은 최초 번역본으로써 이후 출간된 수많은 번역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출간 된 만큼 『어린 왕자』 원문의 Tu와 Vous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에서는 1993년 재출간 번역본을 사용했다.<sup>9)</sup> 둘째, TT2와 TT3은 모두 불문학을 전공한 문학 박사들의 번역본으로, 번역 비평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는 번역본이다.<sup>10)</sup> 본 논문에서 각 번역본의 평가 및

9) Tu와 Vous의 번역을 제외한 초판과 재출간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차이는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비평은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나, 불문학계의 전문가가 번역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흔히 ‘많이 읽히는’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Tu와 Vous의 번역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대상으로 유의미하다. TT2는 2015년 재출간 번역본을 사용했다.<sup>11)</sup> 셋째, TT4는 번역가가 『어린 왕자』의 번역 문법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한 것으로, Tu와 Vous의 번역 양상을 확인하는 데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TT5와 TT6은 번역가 스스로 기존의 번역과 ‘다름’을 주장하며 프랑스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 자부하는 번역인 만큼,<sup>12)</sup> 한국어에는 그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번역어가 없는 Tu와 Vous의 번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분석은 주인공인 어린 왕자가 대화 상대자에게 사용하는 Tu와 Vous를 1) 심리적 거리에 따른 Tu/Vous, 2) 관계 변화에 따른 Tu/Vous의 측면에서 진행한다. 1)의 경우, 주인공인 어린 왕자는 처음 만나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상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Tu와 Vous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두 장면(12장, 19장)을 선정하여 어린 왕자는 어떤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고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원문과 번역본 6종을 비교 분석하여 논의한다. 2)의 경우, 어린 왕자는 동일 인물과의 대화 중 시간이 흐름에 따라 Vous에서 Tu로 호칭을 전환한다. 상대방과의 관계 변화가 잘 드러난 두 장면(2장, 11장)을 선정하여 어린 왕자가 상대방을 Vous에서 Tu로 부르게 된 이유와 한국어 번역을 원문과 번역본 6종을 비교 분석하여 논의한다. 지면 관계상 중략 표기를 통해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만 발췌하였고,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ST의 Tu와 Vous를 비롯하여 각 번역본에서 번역된 해당 부분을 밑줄로 표기했다.

## 3.2. 분석 결과

### 3.2.1. 심리적 거리에 따른 Tu/Vous

#### ① 12 장: 술꾼이 사는 행성

- 
- 10) 김시몽(2010a)은 김화영의 번역을 “진정한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유일한 번역본이자 가장 잘된 번역”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전성기 2016: 9 재인용)
- 11) 마찬가지로 Tu와 Vous의 번역을 제외한 초판과 재출간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차이는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 12) TT5의 번역가 이정서는 역자 서문에서 “이른바 ‘직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10장부터 15장까지 어린 왕자는 각 행성에 살고 있는 어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어린 왕자는 어떤 경우에는 Tu를, 또 어떤 경우에는 Vous를 사용한다. 첫 번째로 비교 분석할 장면은 어린 왕자와 술꾼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ST]

- Que fais-tu là ? dit-il au buveur [...]
- Je bois, répondit le buveur, d'un air lugubre.
- Pourquoi bois-tu ? Lui demanda le petit prince. (p.56)

[TT1]

- “거기서 뭘 하세요?” [...] 그는 술꾼에게 물었다.
- “술을 마시지.” 몹시 음산한 얼굴색으로 술꾼이 대답했다.
- “왜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p.75)

[TT2]

-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는 물었다.
- “마시고 있다.” 술꾼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 “왜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p.52)

[TT3]

-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 “술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답했다.
- “술은 왜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p.54)

[TT4]

- “뭘 하는 거야?” [...] 술꾼한테 어린 왕자가 물었다.
- “술 마신다.”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답했다.
- “왜 술마셔?” 어린왕자가 물었다. (p.336)

[TT5]

- “여기서 뭘 하고 있어?” [...] 술꾼을 발견하고는 물었다.
- “술 마셔.” 술꾼이 침울한 기색으로 말했다.
- “무엇 때문에 마셔?” 어린 왕자가 물었다. (p.65)

[TT6]

“뭘 하고 있어?” 그 아이가 술꾼에게 물었다. [...]

“술을 마셔.” 술꾼이 침울한 기색으로 말했다.

“아저씨는 왜 술을 마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p.68)

해당 장면의 ST를 보면, 어린 왕자는 세 번째 행성에서 만난 어른인 술꾼에게 처음부터 *Que fais-tu?* 라며 *Tu*를 사용해 말을 건넨다. 하지만 TT1-TT3에서 해당 문장은 존댓말로 번역되었다. 어린 왕자가 술꾼에게 사용한 *Tu*에 내포되어 있는 친밀함, 익숙함, 심리적 가까움, 비격식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존댓말로 번역된 것이다. 어린 왕자가 술꾼에게 처음부터 평어를 쓰는 이유는 어린 왕자가 술꾼을 자신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 또는 심리적 거리감이 있어 ‘언어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상대적 연령’의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어 문화권에서 반말로 번역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에게 무조건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어른’인 번역가의 언어 규범적 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장면을 상대적 연령에 따른 수직 관계에 놓인 아이와 어른의 대화로 해석한다면 ST에서 표현된 어린 왕자의 술꾼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반면 TT4-TT6에서는 어린 왕자의 평어를 반말로 번역함으로써 *Tu*의 언어 내적 의미를 살렸다. 특히, TT6에서는 반말로 번역을 함과 동시에 아이가 어른에게 건네는 말이라는 점에서 *Tu*의 대체 호칭으로 상대적 연령을 드러낼 수 있는 ‘아저씨’를 추가하여 한국어 규범에 비교적 부합하도록 번역했다.

## ② 19장: 메아리만 울리는 행성

19장에서 어린 왕자는 아무도 없는 한 행성에서 날카롭게 솟은 바위의 봉우리만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 “*Bonjour*(안녕)”하고 말한다. 들려오는 메아리에게 어린 왕자는 말을 건넨다. 이때 어린 왕자는 무생물인 메아리에게 *Vous*라 말한다. 해당 장면의 ST에서 나타난 *Vous*는 번역본 6종에서 다양한 번역 양상을 보인다.

[ST]

- *Bonjour... bonjour... bonjour... répondit l'écho.*

- *Qui êtes-vous ? dit le petit prince.*

- Qui êtes-vous... qui êtes-vous... qui êtes-vous... répondit l'écho.
- Soyez mes amis, je suis seul, dit-il. (p.80)

[TT1]

“안녕.....안녕.....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넌 누구니.....넌 누구니.....넌누구니.....”  
“우리 친구하자. 난 외롭다.” (p.105)

[TT2]

“안녕.....안녕.....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너희들은 누구.....너희들은 누구.....”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p.78)

[TT3]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 누구니... 너희들 누구니... 너희들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들이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p.79)

[TT4]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답했다.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메아리가 답했다.  
“친구가 되어줘. 외로워.” 그가 말했다. (p.354)

[TT5]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요. 나는 혼자예요.” 그가 말했다. (p.96)

[TT6]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누구야..”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요 나는 외로워요.” 그 아이가 말했다. (p.94)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Tu/Vous의 사용을 논하기에 앞서, 해당 장면에서 Vous의 번역 양상이 다양한 이유는 Vous를 2인칭 단수 대명사로 본 번역본(TT1, TT4, TT6)과 2인칭 복수 대명사로 본 번역본(TT2, TT3, TT5)으로 해석이 나뉘었기 때문이다.<sup>13)</sup>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어린 왕자가 무생물인 메아리에게 Tu가 아닌 Vous로 지칭했다는 점이다. 어른인 숲꾼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거침없이 Tu를 사용하여 대화한 어린 왕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메아리에게 Vous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 왕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말을 따라하는 메아리에게 심리적으로 먼 거리감을 느낀다. 어린 왕자가 메아리를 만난 행성은 “온통 메마르고 뽀족한 소금 투성이의 별”<sup>14)</sup>이며 어린 왕자에게 낮섬의 공간이다. 또한, 어린 왕자는 메아리를 이 행성에 사는 “남이 자기한테 한 말만 되풀이하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sup>15)</sup> 즉, 메아리를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어린 왕자에게 메아리는 만난 적 없는 낮섬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친밀함이나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메아리의 다중적인 목소리는 다수의 존재가 말을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인칭 복수 대명사인 Vous를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에서는 어린 왕자가 복수의 낮섬 존재에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어린 왕자가 메아리에게 건넨 질문인 Qui êtes-vous? 의 경우, vous는 TT4를 제외하고 나머지 번역본에서 ‘너, 너희들, 당신, 당신들’ 등 한국어 2인칭 대명사로 번역되었고, 어린왕자가 메아리에게 느끼는 ‘낮섬’은 ‘누구’라는 의문사 qui와 그 서술어의 번역으로 나타났다. TT5는 “당신들은 누구세요?”라고 복수의 주어와 함께 존댓말로 번역됨으로써, Tu와 Vous의 단수/복수 차이뿐만 아니라 메아리가 낮섬 대상이라는 것까지 반영한 번역이다.

한편, ST의 Soyez는 주어인 vous가 생략되어 쓰이는 명령문의 형태이므로

13) ST에서 2인칭 대명사 Vous가 대신하는 주어는 l'écho(메아리)이며 문법상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TT1, TT4, TT6에서는 Vous를 단수 대명사로 해석한 반면, TT2, TT3, TT5에서는 2인칭 단수 대명사 Tu와 구분되는 일반적인 2인칭 복수 대명사 Vous로 해석했다.

14) *Le Petit Prince*, (p.80) “Elle est toute sèche, et toute pointue et toute salée.”

15) *Le Petit Prince*, (p.81) “Et les hommes manquent d'imagination. Ils répètent ce qu'on leur dit...”

앞선 대화문에 반영된 화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번역해야 ST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 TT5에서는 “내 친구가 되어줘요”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어린 왕자가 메아리를 익숙하지 않는 낯선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TT6의 경우, 앞선 대화 속 vous의 번역과 해당 문장의 번역이 일관되지 않아서 어린 왕자가 메아리에게 느끼는 감정 또한 일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 3.2.2. 관계 변화에 따른 Tu/Vous

#### ① 2장: ‘나’와 어린 왕자의 관계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한 ‘나’와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말을 걸며 양을 한 마리 그려 달라고 부탁한다. 해당 장면에서 어린 왕자는 ‘나’를 향해 경어와 평어를 섞어 말을 건다.

[ST]

- S'il vous plaît... dessine-moi un mouton ! (p.12)

[TT1]

“저..... 양 하나만 그려 줘!” (p.22)

[TT2]

“저.....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p.10)

[TT3]

“저기.....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p.11)

[TT4]

“저기요... 양 한 마리 그려 줘.” (p.303)

[TT5]

“제발...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 주세요!” (p.18)

[TT6]

“저기... 내게 양 한 마리를 그려줘!” (p.19)

화자와 청자의 친밀 관계를 나타내는 Tu와 Vous의 번역 양상 67

프랑스어의 *S'il vous plaît*는 영어에서 주로 *please*로 번역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에서 *vous*를 발견할 수 있듯이, 프랑스어에는 *s'il vous plaît*와 대비되는 개념인 평어의 *s'il te plaît*도 존재한다. 즉, 프랑스어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도 *tu*와 *vous*의 사용이 구분되며, 이것 역시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장면에서 어린 왕자는 처음 만난 어른의 ‘나’에게 낮춤, 격식,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s'il vous plaît*로 말을 걸지만, 동시에 주어 *Tu*가 생략된 명령문 “*dessine-moi*”<sup>16)</sup>를 덧붙여 ‘나’에게 심리적 가까움과 친밀함을 표하고 있다. 해당 장면 이후 어린 왕자는 한 번 더 평어와 경어를 섞어 ‘나’에게 말을 걸고, ‘나’가 양을 그려주기 시작한 후부터 26장에서 ‘나’와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tu*를 사용해 말한다. 처음에는 낮선 누군가에게 부탁하기 위해 말을 건네야 하니 경어를 사용했지만, 점차 어린 왕자가 ‘나’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평어로 전환된 것이다. TT1, TT2, TT3, TT6에서 나타난 *s'il vous plaît*의 “저, 저기”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나 주어진 생략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한국어의 특성<sup>17)</sup>을 반영한 번역이다.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호칭이 얼른 결정되지 않았을 때 호칭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저, 저기’라는 대체 호칭어로 *vous*를 번역했다. TT5는 “*dessine-moi*”에서 드러나는 *tu*보다 *s'il vous plaît*에서 드러나는 *vous*에 더 초점을 두어 ‘제발’이라 직역하고 존댓말로 문장을 마무리하여 어린 왕자의 평어와 경어를 구분하지 않았다. TT4는 어린 왕자의 *vous*와 *tu*의 사용을 조금 더 ST에 가깝게 번역했다. *S'il vous plaît*와 *dessine-moi*에서 극명히 대비되는 ‘나’에 대한 어린 왕자의 심리 변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일 인물과의 대화에서 *vous*가 *tu*로 전환된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원문에서 나타난 경어와 평어의 구분이 번역에서도 드러나야 독자들도 변화된 관계를 느낄 수 있다.

## ② 11장: 어린 왕자와 허영꾼의 관계

10장에서 어린 왕자는 첫 번째 소행성을 방문하여 왕을 만나고<sup>18)</sup>, 11장에서

16) *Vous*를 주어로 하는 명령문이었다면 “*Dessinez-moi*”가 되었을 것이다.

17) 박영순 (2007: 164), 김경희 (2020: 97)

18) 10장에서는 왕과 어린 왕자의 대화가 등장한다. 지위에 따른 격식과 비격식의 측면에서 어린 왕자는 왕에게 *vous*를, 왕은 어린 왕자에게 *tu*를 사용한다.



는 두 번째 행성으로 가 그곳에 살고 있는 허영꾼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허영꾼과 처음 대면했을 때 어린 왕자는 그에게 vous를 사용하여 대화를 한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몇 번의 대화 후 허영꾼에게 tu라고 말한다.

[ST]

- Bonjour, dit le petit prince. Vous avez un drôle de chapeau. [...] (p.52)

- Mais tu es seul sur ta<sup>19)</sup> planète ! [...] Je t'admire, dit le petit prince, [...] (p.54)

[TT1]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 (p.72)

“이 별에는 혼자뿐이잖아요? [...] 전 아저씨를 숭배해요.” 어린왕자가 [...] 대답했다. (p.74)

[TT2]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셨네요.” [...] (p.49)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인데요! [...] 난 아저씨를 숭배해요.” 어린 왕자는 [...] 말했다. (p.51)

[TT3]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 (p.53)

“그렇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 난 아저씨를 찬양해요.” 어린 왕자가 [...] 말했다. (p.55)

[TT4]

“안녕하세요 모자가 희한하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 (p.334)

“하지만 이 행성에 아저씨 혼자잖아? [...] 숭배해요.” 어린 왕자가 [...] 말했다. (p.335)

[TT5]

“좋은 아침이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재미있는 모자를 쓰고 있

---

19) 2인칭 소유형용사로, 주어 tu에 수반된 것이나 여기서는 친밀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관사를 대신해 쓰인 용법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군요.” [...] (p.64)

“하지만 당신 별엔 오직 당신뿐이 없는데! [...] 나는 당신을 찬미해요.” 어린 왕자가 [...] 말했다. (p.66)

[TT6]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 (p.65)

“그렇지만 이 행성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 [...] 아저씨를 찬미해.” [...] 어린 왕자가 말했다. (p.67)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난 허영꾼에게 Vous라고 말한 것은 어린 왕자가 말한 un drôle chapeau, 즉, “이상한(희한한 또는 재미있는) 모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어 사전 Larousse에 따르면<sup>20)</sup> 형용사 drôle은 ‘우스운, 재미있는, 이상한, 놀라운’ 등의 뜻을 지닌다. 형용사 drôle에서 드러나는 ‘이상한’ 또는 ‘놀라운’의 의미는 낯설거나 새로운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어린 왕자에게는 모자를 쓴 허영꾼의 모습이 익숙하고 친숙하기보다는 낯설고 한편으로는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Vous라고 말한 것이다.

어린 왕자는 허영꾼과 손뼉 치기 놀이를 한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치면 허영꾼은 그 답례로 ‘이상한 모자’를 벗으며 박수에 답례하는 놀이다. 5분 쯤 지난 후 어린 왕자는 싫증을 느끼고 허영꾼의 모자를 벗기는 또 다른 방법을 묻는다<sup>21)</sup>. 여기서 어린 왕자가 느낀 싫증은 첫 번째 행성에서 왕을 만났을 때보다 재미있던<sup>22)</sup> 손뼉 치기 놀이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허영꾼의 모자가 더 이상 낯설지도, 신기하지도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허영꾼과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런 이유에서 어린 왕자가 허영꾼을 Tu로 부르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3.2.1의 ①에서 논의한 것처럼, TT1, TT2, TT3은 아이와 어른의 대화라는 한국어에 반영된 언어 규범을 깨지 않기 위해 모두 존댓말로 번역했고 따라서 Tu와 Vous의 구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TT4, TT5, TT6에서는 어린 왕자가 평어로 전환한 것을 반말로 번역하여 허영꾼에 대한 어린 왕자의 관계 인식이 변화한 것을 드러낸다.

번역가들의 고민은 Je t'admire의 번역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ST에서는 tu를

20) Dictionnaire de Français: www.larousse.fr

21) *Le Petit Prince*, (p.53) “Et, pour que le chapeau tombe, demanda-t-il, que faut-il faire ?”

22) *Le Petit Prince*, (p.52) “Ça, c'est plus amusant que la visite au roi.”

의미하는 직접목적어 t(te)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규범에서는 어린 아이가 어른에게 ‘너’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대체 호칭으로 ‘아저씨’를 선택하여 아이와 어른의 수직 관계를 드러낸 것을 TT5(‘당신’)를 제외한 모든 번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TT6은 어린 왕자가 Vous에서 Tu로 사용을 바꾸면서 나타난 허영꾼과의 친밀 관계를 드러내면서 대체 호칭어 ‘아저씨’도 함께 사용하여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및 제언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요소가 담긴 각각의 언어는 언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식차원에서 그 차이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언어적인 차이에서 발생한 표면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어 안에 담겨 있는 사회-문화적, 화용론적 층위를 고려하여 다른 언어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번역했을 때 비로소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프랑스어에서는 2인칭 단수 대명사로서의 Tu와Vous가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 친밀도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된다. 반면,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나 청자를 부르는 호칭 체계는 사회적 지위, 위계질서, 상대적 연령의 기준에 따라 친밀도보다는 상하 수직 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Tu와 Vous에 부합하는 인칭 대명사나 호칭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는 존대나 비존대로 표현되는 문장 어미, 어역의 변화 등 언어적 등가를 지닌 한 단어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언어적 장치로 화자와 청자의 친밀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화자와 청자의 친밀 관계를 나타내는 프랑스어의 2인칭 대명사 Tu와 Vous의 의미 차이와 한국어로의 번역 양상에 대해 『어린 왕자』 한국어 번역본 6종을 비교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언어에서 Tu와 Vous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번역본 6종을 분석한 결과 그 차이가 각 번역본 내에서 일관되게 구분되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번역가들이 Tu와 Vous의 차이를 한국어로 옮기기 위해 존대와 비존대 또는 대체 호칭의 추가 등의 방법으로 번역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0종이 넘는 『어린 왕자』의 모든 번역본을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최근까지도 재번역이 가장

활발한 프랑스 문학 작품인 『어린 왕자』의 대표 번역본 6종의 비교 분석을 통해 Tu와 Vous가 화자와 청자의 친밀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이며, 그 차이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표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린 왕자의 진정한 모습을 한국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Tu와 Vous의 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번역에서도 분명히 들어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아울러, 『어린 왕자』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 속 담화에서도 프랑스어 2인칭 대명사 사용의 구분으로 드러나는 화자와 청자의 친밀 관계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번역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인칭 대명사와 그에 따른 번역 양상을 화자의 친밀감에만 초점을 맞추어 원문과 번역본 6종을 비교 분석했기 때문에 각 번역본의 번역가들의 작품 전반에 대한 해석의 차이, 작가 및 번역가의 문체, 번역가의 불문학과 불문법에 대한 배경지식의 차이 등은 논의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여기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번역가의 해석과 문체의 측면을 고려한 Tu와 Vous에 내재된 화자와 청자의 친밀 관계 번역 차이를 다룬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학술 및 학위논문:

- 김경희. (2020). 「주격 인칭대명사의 생략과 번역 -『프라자 호텔』의 프랑스어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8(4), 97-118.
- 김예숙. (2004). 「프랑스어 인칭 대명사의 사회·문화적 함의 연구」 『사회언어학』 12(2): 51-73.
- 김윤진. (2001). 「문화 충돌과 번역의 문제점」 『불어불문학연구』 45(0), 25-51.
- 김혜령. (2018). 「2인칭 대명사 ‘당신’의 의미 분석」 『Journal of Korean Culture』 42: 7-37.
- 박영순. (1978). 「AGE VARIABLES IN SOCIOLINGUISTICS」 『언어』 3(2): 87-145.
- 박정운. (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2): 507-527.
- 배양서. (1989). 「2인칭 대명사의 사회학적 의미」 『언어』 10: 73-82.
- 어순아. (2005). 「어린왕자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 『한국프랑스학논집』 50: 303-332.
- 원은하·김세정·진실로. (2018). 「공손성을 고려한 인칭 대명사의 영한 번역 - ‘당신’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6(1): 173-205.
- 유송영. (2004). 「2인칭 대명사 ‘당신, 자네, 너’의 사용」 『한국어학』 23: 21-147.
- 임순정. (2010). 문학 작품의 재번역 현상 연구: 스탕달의 『적과 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의식. (2001). 프랑스 소설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 : Le père Goriot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Jeanmaire Guillaume. (2015). Comment rendre compte des pratiques socioculturelles coréennes dans les sous-titres filmiques français ? 『한국프랑스학논집』 89, 251-267.

단행본:

- 고종석. (2021). 『어린왕자』 서울: 삼인출판사
-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1994).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서울 : 한국사전연구사
- 김 현. (1993). 『어린왕자』 문장더그레이트북스
- 김화영. (2007). 『어린왕자』 경기: 문학동네
- 박영순. (2007). 『한국어 화용론』 경기: 도서출판 박이정
- 이정서. (2016). 『어린왕자』 서울: 새움출판사.
- 전성기. (2016). 『어린왕자의 번역문법 - 문법·작품·번역의 회통적 탐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황현산. (2015). 『어린왕자』 경기: 열린책들
- Delatour, Y., Jennepin, D., Léon-Dufour, M. et Teyssier, B. (eds.) (2004). *Nouvelle grammaire du français: Cours de Civilisation Française de la Sorbonne*. Paris: Hachette.
- Maurice Grevisse et André Goosse. (eds.) (2008). *Le bon usage*. Bruxelles: De Boeck Université.
- Pierre-Henri Simon. (eds.) (1963). *À la rencontre du Petit Prince. Saint-Exupéry - Collection génies et réalités*. Paris: Hachette, 189-220.
- Poisson-Quinton, S., Mimran, R. et Maheo-Le Coadic, M. (eds.) (2002). *Grammaire expliquée du français - Niveau intermédiaire*. Paris: CLE International.

This paper was received on 19 November 2021; revised on 30 November 2021; and accepted on 3 December 2021.

---

*Author's email address*

stephen9076@naver.com

*About the author*

Yoonji Son is a PhD student at 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iterary translation and discourse analysis.